

2013년 국가직 9급 문제 해설 - '한국사 연표 정리' 김기원 해설
'한국사 연표 정리' 무료 강의 진행 중
유튜브 및 유명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한국사 연표 정리'를 검색해 보세요

1. 밑줄 친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였다.

- ①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③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 ④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 정답 ①

(해설) 율령 반포와 금관가야 복속에서 법흥왕임을 알 수 있음.

- ①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 법흥왕 때 사용한 신라 최초의 연호 = ○
- ② 이사부를 시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지증왕 = ×
- ③ 유학 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 신문왕 = ×
- ④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진흥왕은 한강 유역 차지 후 고구려·백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체제로 돌입하면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함 = ×

2. 다음은 같은 해에 벌어졌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 박종철 사건
- 4·13 호헌 조치
- 6·10 국민 대회 개최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 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③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 ④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2. 정답 ②

(해설) 박종철 사건과 4·13 호헌 조치 및 6·10 국민 대회 개최에서 6월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음. 6월 민주 항쟁의 전개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 →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 4·13 호헌 조치 (대통령 간선제의 유지 발표) →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망 사건 → 6월 민주 항쟁 →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수용) → 9차 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 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12·12 사태 이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 맞음 = ○
- ③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 10월 유신 내용 = ×
- ④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 유신 헌법(7차 개헌)의 내용 = ×

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조선시대 왕릉 등이다. 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① ㉠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 ② ㉡ -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다.
- ③ ㉢ -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 ④ ㉣ -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3. 정답 ④

- ① ㉠ -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심 = ○
- ② ㉡ -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다.
 -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 ○
- ③ ㉢ -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 일제에 의한 고종·순종에 관한 기록도 있으나, 이는 조선왕조실록으로 보지 않음 = ○
- ④ ㉣ -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것은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로 직지심체요절은 아님. 직지심체요절은 프랑스 공사가 가져감 = ×

4.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동통보를 비롯한 돈 15,000관을 주조하여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활구(濶口)라 불렀다.

- ①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 ②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 ③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었다.
-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4. 정답 ③

(해설) 은병(활구) 등 많은 화폐를 발행한 것에서 고려 속종임을 알 수 있음.

- ①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 조선시대 대동법 실시 이후 = ×
- ②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하였다.
 - 조선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
- ③ 대도시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었다.
 - 고려시대에만 국가가 직접 상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관영 상점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상업 천시로 없음 = ○
-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신라 지증왕 때 경주에 동시를 개설하면서 감독관청인 동시전 설치 = ×

5. 다음 민요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조선 전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짚신에 감발차고 패랭이 쓰고
꿇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지고
이 장 저 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지르며
...(중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 날 저 장에서 다시 보세

- ①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 ②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 ③ 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 ④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하였다.

5. 정답 ③

(해설) 지문은 보부상에 관한 내용임.

- ① 15세기 후반 이후 장시는 점차 확대되었다.
 - 15세기 후반에 장시가 등장하여 점차 확대되면서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으로 확대 = ○
- ②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 조선 전기 보부상은 장시에서 유통을 담당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함 = ○
- ③ 정부가 조선통보를 유통시킴으로써 동전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
 - 세종 때 조선통보가 발행되었으나, 유통이 활발하지는 않음. 숙종 때 상평통보를 법화를 채택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 = ×
- ④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지방에서 장시가 증가하였다.
 - 조선 전기에는 농본억상책으로 장시의 증가는 농업 생산력이 원인. 조선 전기와 관련된 농업은 시비법 발달로 연작상경 일반화, 2년 3작의 윤작법 널리 보급, 남부 지방에 이앙법 보급, 농기구 개량(쟁기·낫·호미 등) = ○

6.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 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6. 정답 ①

(해설)

상기 지문은 군국기무처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를 모른다고 하여도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정답을 찾아들어감.

1차 김홍집 내각 때 제1차 갑오개혁이 실시되었고, 2차 김홍집 내각 때 제2차 갑오개혁이 실시되었으며, 4차 김홍집 내각 때 을미개혁이 실시되었음.

2차 김홍집 내각은 청·일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박영효와 서광범을 투입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임. 따라서 지문에 박영효 또는 서광범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2차 김홍집 내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제1차 갑오개혁은 대체로 중앙의 정치·행정 분야의 개혁이고, 제2차 갑오개혁은 지방과 사법·군사·교육 분야로 개혁이 확대되었으며, 을미개혁은 기타 나머지 분야의 개혁임.

- 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 = ○
-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하였다.
 - 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 = ×
- ③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대한제국 때 실시한 광무개혁의 내용 = ×
- ④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다.
 -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 = ×

7.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관리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나)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①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 ②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 ③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④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7. 정답 ④

(해설) 녹읍 폐지는 통일신라 신문왕. 녹읍 부활은 통일신라 경덕왕.

- ①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하였다.
 - 법흥왕 때 병부 설치. 통일 이전 = ×
- ②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이 있었다.
 - 진지왕은 정치가 어지럽고 문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서 폐위됨. 통일 이전 = ×
- ③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 신라 말기의 상황 = ×
- ④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 신문왕 때 전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진골 세력을 억제하고자 6두품을 등용함 = ○

8. 다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주고,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定)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율곡전서’ 중에서-

- ①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 ②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하였다.
- ③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두꾼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 ④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8. 정답 ③

(해설) 약정과 율곡전서(이이, 해주향약·서원향약)에서 향약임을 알 수 있음.

- ①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 향약의 기능은 풍속 교화, 질서 유지, 치안 담당의 향촌 자치 기능임 = ○
- ②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하였다.
 - 맞음 = ○
- ③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고, 상두꾼이 조직에서 유래하였다.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향약의 4대 덕목인 환난상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두꾼은 향도에서 분화됨 = ×
- ④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 맞음 = ○

9. 줄 친 ‘평량’과 ‘평량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사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평량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사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 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보기>

- ㄱ. 평량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 ㄴ. 평량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다.
- ㄷ. 평량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 ㄹ. 평량의 처는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9. 정답 ②

(해설) ‘평량’과 ‘평량의 처’는 사노비로 외거노비임.

- ㄱ. 평량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 외거노비는 토지 소유 가능 = ○
- ㄴ. 평량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다.
 - 외거노비는 따로 삼 = ×
- ㄷ. 평량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 공노비와 관련된 내용 = ×
- ㄹ. 평량의 처는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하여 매매·증여·상속의 대상 = ○

10. 다음의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
 제2조 : 구 백동화의 품위(品位) · 양목(量目) · 인상(印象) · 형체(形體)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매 1개에 대하여 금 2전 5분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함이 가함

- ①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② 일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③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④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10. 정답 ③

(해설) 재정 고문 메가다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임.

- ①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 백동화를 실질 가치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구분하고 병종은 아예 교환에서 제외하여 재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으며, 또한 그만큼 돈이 돌지 않아 전황이 발생하면서 한국 상인들이 타격을 받음 = ○
- ② 일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전환국을 폐지하고 화폐 발행권을 탈취하여 제일은행권이 법화가 되면서 일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함 = ○
- ③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 예를 들어 액면에 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화폐도 만 원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실제 동화를 ‘동’이라는 금속물로 팔았을 때의 실질 가치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따름 = ×
- ④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 특히 백동화를 남발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음 = ○

11. 다음 자료의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우마로 배상하였다.
 (나)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 ① (가) -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 ② (나) -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 ③ (가), (나)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 ④ (가), (나) - 대가들이 제가 회의라는 부족장 회의를 운영하였다.

11. 정답 ②

(해설) (가)는 동예의 책화에 관한 내용이고, (나)는 옥저의 세골장과 가족 공동 무덤에 관한 내용임.

- ① (가) -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 영고는 부여와 관련된 내용 = ×
- ② (나) -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 민며느리제는 옥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음 = ○
- ③ (가), (나) - 왕권이 강화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 옥저와 동예는 왕이 없고 각 부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군장 국가 단계에서 멸망함 = ×
- ④ (가), (나) - 대가들이 제가 회의라는 부족장 회의를 운영하였다.
- 제가 회의는 부여와 초기 고구려의 내용 = ×

12. 조선 영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정비하였다.
- ②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 ③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하였다.
- ④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12. 정답 ④

- ①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정비하였다.
- 성종 경국대전 → 영조 속대전 → 정조 대전통편 → 대원군 대전회통 = ○
- ②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 영조 때 군역법을 실시하여 1년에 군포 2필에서 1필로 감소시킴 = ○
- ③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하였다.
- 영조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봉당들의 세력 기반 약화 목적으로 산림의 본거지인 서원 정리 = ○
- ④ 각 봉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영조는 완론탕평(느슬할 [완], 완만하다)으로 온건파를 탕평파로 육성하는 탕평책이고, 정조는 준론탕평(준엄할 [준], 엄준하다)으로 각 봉당의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임 = ×

13. 밑줄 친 ‘여러 단체와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07년 설립된 신민회 회원들은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이 목전에 있다고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민회의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경학사
- ② 권업회
- ③ 부민단
- ④ 신흥무관학교

13. 정답 ②

(해설) 서간도 삼원보에 있었던 단체를 묻는 내용임.

- ① 경학사
 - 서간도 삼원보에 설치한 자치 기구 = ○
- ② 권업회
 -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 = ×
- ③ 부민단
 -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개편됨. 경학사(1911) → 부민단(1914) → 한족회(3·1 운동 이후, 1919) = ○
- ④ 신흥무관학교
 - 서간도 삼원보에 설립한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 신흥강습소 → 신흥학교 → 신흥무관학교 = ○

14.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1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에는 왜군 17명, 왜경 2명, 한인 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 내어 죽인 뒤 ...(중략)...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나) 상해의 한국 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로 건너 갔다. 그는 마침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전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 준 것이다.

- ① 남만주에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 ②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③ 독립군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 ④ 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14. 정답 ①

(해설) (가)는 민간인 대량 학살로 간도 참변(1920)이고, (나)는 이봉창(한인 애국단)의 일본 국왕 암살 시도 사건(1932)임.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1920년대 무장 투쟁 전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봉오동 전투(1920.6월) → 훈춘 사건(1920.9월) → 청산리 전투(1920.10월) → 간도 참변(1920.10월) → 대한 독립군단 조직(1920.12월) → 자유시 참변(1921.6월) → 3부 성립 (참 의부·정의부·신민부, 1923~1925) → 미쓰야 협정(1925) → 3부의 통합 운동으로 국민부와 혁신 의회 성립(1927~1930)’.

그리고 국민부와 혁신 의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민부 : 남만주, 조선 혁명당, 조선 혁명군(양세봉)
- 혁신 의회 : 북만주,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지청천)

또한 한인 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가 국민 대표 회의 이후 침체된 임시 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고, 1931년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과 만주 사변으로 중국인 감정 악화에 대한 타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과 이봉창은 다음 해인 1932년에 모두 거사를 실행함.

따라서 문제는 크게 보아 1920년대 사건을 찾는 것과 같음.

- ① 남만주에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 조선 혁명군은 국민부에서 창설(1929)한 것으로 1920년대임 = ○
- ②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 = ×
- ③ 독립군이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 봉오동·청산리 전투 패배로 인한 보복 목적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났으므로 아님 = ×
- ④ 동북 항일 연군을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 동북 항일 연군 조직은 1930년대인 1936년이고, 동북 항일 연군 중심의 전투로는 보천보 전투(1937)가 있음 = ×

15. 조선 전기 사림(士林)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山林)이 존중되었다.
- ②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 ③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다.
- ④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15. 정답 ①

- ①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山林)이 존중되었다.
- 사람이 훈구파를 몰아내고 주도권을 장악하고 난 후, 사림 간의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조선 후기에 산림의 비중이 높아짐 = ×
- ②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 맞음 = ○
- ③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하였다.
- 성종은 훈구파 견제 목적으로 사림을 중용하면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에 기용함 = ○
- ④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 맞음 = ○

16. 삼국의 항쟁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ㄷ.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ㄹ.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 ① ㄴ → ㄷ → ㄹ → ㄱ
② ㄴ → ㄹ → ㄷ → ㄱ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ㄴ → ㄱ → ㄷ

16. 정답 ②

(해설) 삼국시대 전성기 순서는 ‘근초고왕 (4세기) - 광개토대왕 · 장수왕 (5세기) - 진흥왕 (6세기)’임.

- ㄱ.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 의자왕 초기 모습 (7세기)
- 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 근초고왕 (4세기)
- ㄷ.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 진흥왕 (6세기)
- ㄹ.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 장수왕 (5세기)

17. 조선 후기 호락(湖洛)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②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 ③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 ④ 호론은 북학파의 과학 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17. 정답 ④

(해설) 호락논쟁은 노론(주기론) 내부에서 발생한 논쟁으로 호론은 호서 지방(충청도)의 노론이 주장하였고, 낙론(서울, 여기서 ‘낙’은 서울을 의미하는데 주나라 수도인 낙양에서 연원)은 서울의 노론이 주장하였음.

기본적으로 둘 다 주기론의 입장이지만, 주기론 입장에서 기만 고집한 것이 주기 호론이고, 주기론 입장에서 이도 포용한 것이 주리 낙론임. 아무래도 서울 노론들이 상업에도 종사하고, 좀 더 개방적이라 기만 고집하지 않고 이도 포용함.

그래서 기만 고집하고 이를 배격한 호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하면서, 청을 사물(동물)로 보아 배척하였음(화이론).

반면 이도 포용한 낙론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면서, 청의 문물을 동등하게 보아 수용하려는 북학 사상으로 이어짐.

- ①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 맞음 = ○
- ②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 맞음 = ○
- ③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 맞음 = ○
- ④ 호론은 북학파의 과학 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 낙론 → 서울 사람 → 개방적 → 청의 문물 수용 → 북학파 = ×

18. 연표의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발발				
↓	↓	↓	↓	↓				
	(가)		(나)		(다)		(라)	

- ① (가)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② (나) -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③ (다) - 김구·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 ④ (라) -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18. 정답 ④

(해설) 광복 1945.8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12월, 5·10 총선거 1948.5월, 6·25 전쟁 1950.6월.

- ① (가)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다.
- 미군정은 이전의 모든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별한 활약은 없음. 건국 강령 제정은 1941년 = ×
- ② (나) -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월) 이후 북한 정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1948.9월) = ×
- ③ (다) - 김구·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 5·10 총선거 이전에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1948.4월) = ×
- ④ (라) -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제1공화국이 성립한 후 제헌 헌법을 근거로 친일파 청산 목적으로 재빠르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1948.9월에 제정되기는 하였음.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 없이 끝남 = ○

19.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따라서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저 옛 성인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중략) ...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이(神異)로써 이 책의 앞머리를 삼은 까닭이다.

- ①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④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

19. 정답 ④

(해설)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불교·설화 등 비합리적 내용을 삭제한 삼국사기에 반대한 삼국유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삼국유사는 불교 사관으로 고대의 신화·설화 등을 수록하였으며, 더불어 단군신화도 수록함(고조선 계승 의식). 그리고 야사체·기사 본말체임.

- ①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 성리학적 사관 = ×
-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삼국사기 = ×
-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삼국 중에는 신라 계승을 강조하였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한 것은 서시시 형태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임 = ×
- ④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하였다.
- 맞음 = ○

20. 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冢宰)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뢰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곧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

- ① 육조 직제제의 시행
- ② 사간원의 독립
- ③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 ④ 집현전의 설치

20. 정답 ③

(해설) 재상에 관한 설명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관임을 알 수 있음.

- ① 육조 직제제의 시행
 - 왕권 강화책 = ×
- ② 사간원의 독립
 - 태종 때 중서문하성의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는데, 이때의 목적은 대신들 견제 목적이었음 = ×
- ③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 재상 중심의 정치 맞음 = ○
- ④ 집현전의 설치
 - 학술 연구 기관으로 관련 없음 = ×